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10월 불국사서 개최

종단협, 3월 11일 이사회·정기총회
3월 30일~4월 1일 예비회의 진행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순례는 호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연력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1일 '불기 2570(2026)년 제1차 이사회 및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한·중·일 불교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우의를 다지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10월 경주 불국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70(2026)년 제1차 이사회 및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예비회의 관련의 건을 비롯해 임원 변경의 건, 불기 2569년도 결산, 2026년도 회원종단 의전순서,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순례 사업 등의 안건을 다뤘다.

회의에 앞서 회장 진우 스님은 "우리 각 종단이 펼치는 수행과 포교, 사회적 실천이 모여 이 땅에 평화와 상생의 문화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길 발원한다"며 "오늘 여러 안건이 지혜롭게 논의돼 종단협이 한국불교의 공공성과 연대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단협은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예비회의를 개최한다. 예비회의에는 각국 교류위원단이 참석하며, 한국 측은 종단협 상임이사 종단으로 구성된다.

예비회의에서는 대회 주제, 일정, 장소 등 세부 준비 계획 공유와 한·중·일 삼국 합의서 체결이 이뤄진다. 한국 측은 본대회 장소로 경주 불국사를 제안할 계획이다. 10월에 열릴 본대회에는 각국에서 약 100여 명씩이 참석해 학술세미나와 평화기원법회 등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올해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순례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호주에서 진행된다. 순례는 2012년부터 회원 종단 간 화합과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종단협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승인과 정관 개정이 의결됐다.

이날 오후 이어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의 '불기 2570년도 제46차 정기총회'에서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 일본대회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천태종 총본산 비예산 연력사에서 개최된다. 올해 일본대회는 '현대에 있어서의 신과 행'을 주제로 양국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강연회, 공동성명문 채택, 환영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예·결산 승인과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이사장 연임 등 임원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상진 스님은 "협의회 소속 스님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한일 양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물꼬'

주광덕 시장에 공로패 수여
20여 명 구성 '프로목민관'
적극 행정으로 모순 해소


진우 스님이 주광덕 남양주시장(오른쪽)에 공로패를, 양기영 남양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해 남양주시 내 전통사찰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가능하게 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광덕 시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 중인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공로를 치하했다. 실무 책임을 맡은 양기영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했다.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전통사찰 내 지목 현실화와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거나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전통사찰 경내지가 실제 종교용지임에도 일부 토지 등기가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불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내지임에도 다른 지목으로 묶이면서 사찰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남양주시는 규제개혁 차원의 적극 행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목민관' 제도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명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부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 내 11개 전통사찰 가운데 봉선사와 불암사는 경내 토지의 종교용지 전환과 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수정사와 석천암도 경내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우 스님은 이날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준 데 대해 종단 차원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남양주시 사례가 계기가 돼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AI도 해결 어려운 마음 평안, 선명상으로"

3월 1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서
2025년 결산·포교 현안 보고


조계종은 3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AI 시대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의 평안'을 선명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K-선명상 세계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3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저출산, 자살률, 급속한 노령화,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행복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고 여러 사건과 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한 기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덜어 주며 평안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포교 전법의 길로 '선명상'을 선택했다"며 "우리 민족 고유의 수행 전통인 선(禪)과 오늘날 세계적 흐름이 된 명상(Meditation)을 접목해 탈종교 시대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불교가 자연스럽게 사회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돕는 수행 방법으로 선명상을 널리 확산시켜 어느새 불교와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어 가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선명상을 국민 마음 평안의 길이자 국가적 '마음 안보'의 길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불교 문화의 안정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성과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통과됐고, 사찰 경내지를 종교용지로 제도화하는 법안도 국회와 협의해 상당한 성과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단과 전통사찰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법 활성화를 위한 포교 현안 보고 △불기 2569(202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 진행 경과 보고 △사찰 전각 주변 산불 예방 안전공간 조성 사업 추진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에는 특별교구 2곳을 포함한 27개 교구본사 가운데 25개 교구가 참석했으며, 월정사·화엄사·대흥사·선운사는 대리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상진 스님 "태고종 발전 일굴 동력 되길"

동방불교대학 입학식
76명 입학, 2년간 정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법담 스님)이 신입생을 맞고 태고종을 이끌 인재 양성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동방불교대학은 3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1982년 개교한 동방불교대학은 태고종립 교육기관으로 불교학과와 범패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리와 의례가 조화된 교육을 통해 종단 교역자와 불교 지도자를 양성 중이다.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 불교학과 52명, 범패학과 24명 등 총 76명이 입학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신입생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40년 간 본교는 종단의 중추적 교역자와 불교 지도자를 배출했다"면서 "오늘 입학식을 계기로 신입생들은 본교의 일원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품고 종단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3개월(출강·통신) 속성 교육 (제7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개강일시 : 2026년 4월 6일 (월) 오후 3시 (목탁, 필기구 지참)
・출 강 반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통 신 반 : 교재, 교육자료, 강의영상자료(동영상파일) – 메일 또는 카카오톡 발송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